

# 韓國家族과 家族治療

—한국 도시중산층을 위한 정신치료 모형의 구상—

엄 예 선\*

## I. 序 論

정신치료가 한국에 들어온지 70년이 넘도록 아식 한국풍토에 깊은 뿌리를 박지 못했다.” 한편 무속, 한의학, 민속신앙 요법 등 재래적인 방법들은 현대 사회에서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정신치료적 접근책들을 보완해주고 그들과 아울러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신치료적 접근책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중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을 구상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전제는 한 문화권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의 구상은 그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만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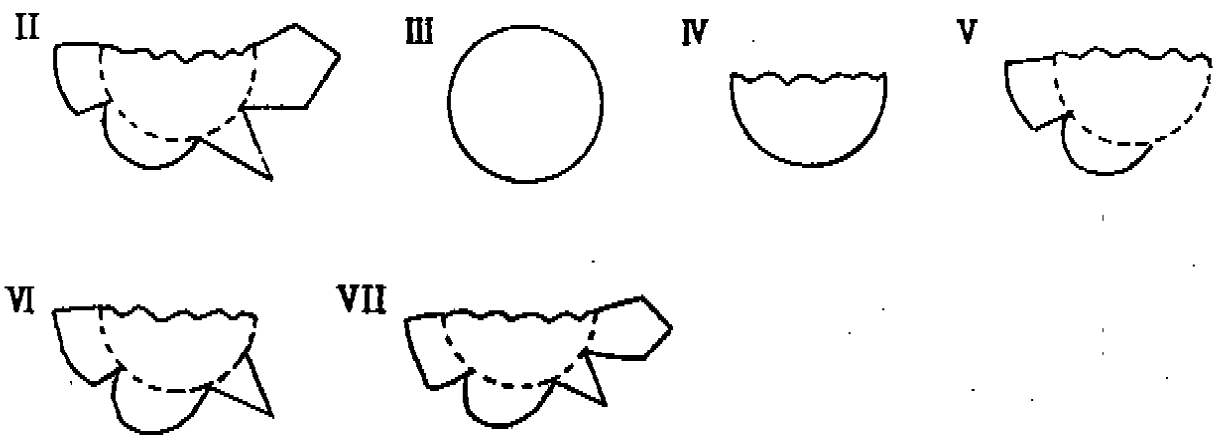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절차를 살펴보면, 어느 문화이건 다른 문화권에서 발달된 치료책에 힘입어 그 문화에 맞는 치료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서울여자대학 사회사업학과 교수

1) 이 부영(1979), 정신의학과 한국문화. -역사적 고찰, 최신의학 22(9), pp. 863-868.  
이 재원, 윤 석학, (1981), 한국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치료 실시 현황 및 그들의 정신치료에 관한 견해, 신경정신의학 20(1) 94-107.  
김 광일, 김 명정(1973), 정신과 입원환자 치료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문제들, 신경정신의학, 12(4) pp.245-254.

- II. 그 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의 탐색.
- III. 타 문화권으로부터 위의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치료적 모형을 선택.
- IV. 선택된 모형의 수정.
- V. 대상 문화권 밖과 안에서 발견되는 다른 치료적 요인들로 보강.
- VI. 대상 문화에 적절한 일반적 치료적 원칙들로 보강.
- VII. 치료이후의 교육프로그램의 보강.

II단계에서 가상적인 치료의 모형의 구상이 확립되며 III~VII단계는 이 구상된 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위의 절차를 한국문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II. 本 論

### 1. I 단계 : 한국 문화의 분석

#### 1) 전통 가족의 특성

유교 사상, 농업위주의 경제체제, 정치적 현실때문에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가족주의의 특징을 가졌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은 가족 이전에 존재할 수 없었다. 전통 가족의 목적과 임무는 주로 1. 제사를 통한 조상의 신을 계승하는 것. 2. 가족 경제를 유지 번영시키는 것. 3. 아들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전통 가족의 특징은 가부장의 절대적인 권한, 여성의 낮은 지위, 부자(父子) 특히 아버지와 장남관계 중심, 효 사상의 실천, 부부 간의 거리감, 축첩, 가족 내에서의 세대와

가족은 윗어른 중심, 남성중심이었다. 또 전통 사회의 구성원들은 부모가 생존하는 한 항상 심리적인 면에서 아이의 위치에서 살았다. 전통 사회의 여성들은 심한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아들에 대한 기대, 잡신의 숭상, 무당 방문, 또는 들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민요를 부르는 데서 받았다.<sup>3)</sup> 이들이 무당 앞에서 집단춤을 춘다든가 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일종의 집단 치료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2) 현대 가족의 특성

현대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화, 산업화, 서구화 등 서구 사회에서 2~3 세기에 걸쳐 치른 변화를 한국 사회는 지난 40여년간 치루어야 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가족에 미친 영향력은 막대하다. 전통 가족에 비해 현대 가족은 개인주의, 부부 중심, 가족간의 민주적 관계, 여성의 지위향상 등의 방향으로 변함으로써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중류가정까지도 핵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실재는 변형된 확대가족 문화 속에서 가까운 확대 가족들과의 강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다.<sup>4)</sup> 부부 간의 대화의 내용이나 여성의 이혼관 등을 중심으로 볼 때 현대 가족은 과거의 노부모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었지, 아직 부부 중심으로 바뀌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부부 관계는 감정중심의 동반자적 관계라기 보다는 업무 중심의 관계이다.<sup>5)</sup>

현대 가족의 특징은 전통적 사상과 현대적 사상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화의 속도가 각 가정마다 다르고 또한 가정에서의 가족원마다 다르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세대는 구세대에 비해 현대화의 속도가 빠르다. 한개인을 볼 때도 현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나 실제 행동은 전통적 가치관을 따르고, 남에게는 현대적 가치관을 기대하나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전통

2) 최 제석(1982), 한국가족 연구, 개정, 일지사, 서울.

이 광규(1981),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서울.

3) 이 광규(1981),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서울.

4) 최 제석(1982), 현대가족 연구, 일지사, 서울.

5) 이 근후, 이 동원(1973),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본 결혼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22. 이화여자대학교.

보이나 심리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겪고 있다.”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면은 가까운 장래에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가족학자들은 보고하고 있다.<sup>6)</sup>

### 3) 한국인의 가치관 성격 대인관계의 특징.

한국인의 가치관, 성격, 대인관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들로는 무속, 불교, 유교 등의 종교와 정치적 현실과 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sup>7)</sup> 한국인의 주요 가치들은 효, 화평과 조화, 중용, 분수를 지킴, 질서, 친족의식, 충성심, 순응성, 인애심, 상부상조, 인격의 통합, 자기통제, 남아선호, 남녀유별 등이다.<sup>8)</sup>

한국인의 성격은 따뜻하고, 종교적이고, 감정적이고, 강인하고, 목적과 의미 지향적이고, 의존적이고, 충성적이고 가족 및 Group지향적이다.<sup>9)</sup> 한국인의 가족 및 Group지향적인 성격은 강한 우리의식, 약한 자아의식, 체면의식, 배타성, 타인의 불인준에 대한 파민성, 책임의식의 결여, 투사적 경향, 자기통제, 강한 소속의식 등의 형성에 기여했다.<sup>10)</sup>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특징으로는 위계질서, 비간접적인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감정의 억제, 갈등의 회피, 갈등해결을 위한 제3자의 사용

- 
- 6) 최 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서울.
  - 이 정덕(1981),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가족에 관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다른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성격논총, p.12.
  - 고 영복(1967), Change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Asiatic studies, 10.(2), pp.319-336.
  - 7) 이 광규(1981), 한국가족의 구조 분석, 일지사, 서울.
  - 8) 고 영복(1969), The Changing process of Korean Family Structure, In Asian Studies Special Volume for the Tenth Anniversary.
  - 이 광규(1972), The Korean Families in a Changing Society, East Asian Cultural studies, 2(14)
  - 9) 김 대곤(1982), 한국 무속 연구, 집문당, 서울.
  - 유 동식(1981), 한국 무속의 역사와 구조, 연세, 서울.
  - 김 태환(1979),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본 한국인의 국민성, 국민윤리, 8, 정신 문화 연구원.
  - 오 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박영사, 서울.
  - 이 부영(1983), 한국인의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인의 윤리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서울(pp. 227-269).
  - 이 동식(1981),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일지사, 서울.
  - 윤 태림(1970),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최 재석(1983),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서울.
  - 10) 이 부영, Ibid.
  - 홍 승면(1983), 일제통치사가 한국인의 윤리관 형성에 끼친 영향, 한국인의 윤리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서울.
  - 11) 이 부영, Ibid.
  - 최 재석, Ibid.
  - 차 재호(1983), 국민성의 활성화 시안: 시안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인의 윤리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 김 태환, Ibid.
  - 오 세철, Ibid.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의 사상이 들어옴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Group지향적인 면이 약화되고 현대적인 가치관과 자아지향적인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자의 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이 두 상반되는 가치관들과 의식의 대립은 한국사회와 가정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4) 도시중류가족에 대한 조사연구 :

가족간의 관계, 가족문제, 상담에 대한 태도

다음은 1983년 511 서울중류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자의 조사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의 표본은 일반가정의 가족원 407, 가정상담을 구한 가정의 가족원 57, 정신과 도움을 받고 있는 가족원 47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분석방법은 ANOVA와 카이스퀘어가 주 방법이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중류가정은 부부관계와 아버지와 자식관계가 소원하고 어머니와 자식관계가 가깝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도움집단에서 일반집단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관계로 일반집단에서는 부부관계들, 상담집단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사이들, 정신과집단에서는 확대가족원과 핵가족원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도움을 받는 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7%로 상담 그룹의 38%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가족원들 간의 문제해결 향상이 더욱 민주적이고 부부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는 가정이 더 많고 더 부부중심적이고, 한편 남편의 주도권이 도움집단보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일반집단은 도움 집단에 비해 핵가족 안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 더 강하고 확대가족과의 경계선이 분명한

12) 최 재석 Ibid.

오 세철 Ibid.

이 부영 Ibid.

Chang, Yun-Shik(1982) The urban Korean as individual. In Korean Society. Seoul :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차 재호 Ibid.

윤 태림 Ibid.

황 필호(1983), 한국인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한국인의 윤리관.

Seoul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3) Chang, Yun-Shik Ibid.

오 세철 Ibid.

최 재석 Ibid.

이 부영 Ibid.

차 재호 Ibid.

위의 결과는 Structural Family Therapy의 가족이론이 한국에서도 적용됨을 시사해준다.

상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에서는 아이문제, 친족문제, 부부문제 순으로 상담에 응할 용의가 컸고, 상담집단에서는 부부문제, 친족문제, 아이문제 순으로 컸다. 일반집단의 약 1/3, 상담집단의 약 2/3가 가정문제로 상담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고, 일반집단에서는 어머니, 딸, 아버지, 아들 순으로 상담동기가 강했다. 상담을 안 받겠다고 답한 전체응답자의 47%가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4%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14%가 상담자의 능력의심, 10%가 상담을 안 믿음, 5%가 부끄러움과 비밀노출의 두려움으로 답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은 ① 가족의 Privacy와 가족보호의식을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② 상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③ 상담의 효과를 빠른 시일안에 가져와야 함을 시사해준다.

##### 5) 도시중류가정의 가정문제.

1981년 이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중류가정의 문제들은 부부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문제, 친족과 관련된 문제 순위로 심각하다고 했다.<sup>14)</sup> 필자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세 집단 모두 부부문제를 들고있고, 다음으로 일반집단과 정신집단은 아이들 문제, 경제문제, 친족문제 순으로, 상담집단에서는 친족문제, 경제문제, 아이들 문제 순으로 답했다.

여기서 한국가정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결혼 전 준비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들.

② 상하적 부부관계.

③ 부부 간의 소원함, 의사소통 문제, 함께 지내는 시간의 결핍.

④ 중년여성의 여가문제.

14) 이동원(1981), 도시 가족 연구, I: 결혼에 관한 태도의 비교, 1958-1980. 한국 문화 연구원 논총, 39. 이화여자대학교.

- ⑥ 음주 및 도박.
- ⑦ 가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목적의식의 결핍.
- ⑧ 경제적 문제.
- ⑨ 성적인 문제 및 부정.
- ⑩ 정신적, 성적, 육체적 학대.
- ⑪ 부모 자식 간의, 특히 어머니와 자식간의 일체감, 즉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
- ⑫ 아버지의 부재(不在).
- ⑬ 권의주의적인 양육방법.
- ⑭ 일관된 가치관 교육의 결핍.
- ⑮ 남아선호 사상.
- ⑯ 부모의 교육결여.
- ⑰ 핵가족과 확대가족원 사이의 갈등 및 모호한 경계선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이들 중 부부 간의 거리감과 부모자식 간의 밀착된 관계에 치료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15) 이 동원(1979), *한국에서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조혜정(1981), *A Study on the working and the non-working wiv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ir conjugal power relation*. In Reports of the Korean Committee of UNESCO, Seoul.

Cho, Hyong(1981), *Modern Society and the family*. In Seminar reports of the Korean committee of UNESCO, Seoul.

최재식(1982), *한국가족연구*, Seoul: 일지사.

한남제(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서울.

이동원(1984),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Symposium, 한국여성회: 서울.

한남제, *Ibid.*

이정익(1981),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가족에 관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다른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성곡논총, 12.

이근주, 이동원(1973), *외사소통 과정을 통해 본 결혼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22, 이화여자대학교.

조은(1981), *산업화와 새로운 가부장제-여성의 적응과 갈등*, 한국 사회학 연구회 서울.

강화자(1982), *노이로제와 사회 문화적 측면*, 최신의학, 25(5), 128-137.

이진숙(1984), *부부관계 내에서의 폭력,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심포지움*, Seoul: 한국여성회.

김현숙(1980), *한국에서의 가출 청소년의 가족 역동에 관한 연구*, Journal of RIMSK 12(3)

이동식(1983), *현대인과 노이로제*, 일지사, 서울.

홍강의(1982), *한국에서의 소아정신의학의 발달*, 신경정신의학, 21, 183-193.

정원식(1979), *한국 가정 교육의 구조와 기능*, 성곡논총, 10, 47-67.

이광규(1981),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서울.

이효재(1973), *한국인의 남아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1

(10) 이화여자대학교.

그동안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준제해설 방법으로는 두족, 한방의약, 민속 신앙등이 있고 현대적 방법으로 정신과 치료가 있다. 무속과 민속신앙 요법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치료적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무감, 최면상태, 통성기도 등의 안전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감정의 환기 및 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sup>16)</sup>

② 치료자는 도움의 대상들에게 강한 감정이입과 이해와 수용을 표시한다. 이것은 내림굿에서의 선배무당의 "이제는 만인의 슬픔이 네 슬픔이 되었다"는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17)</sup>

③ 특히 무속에서는 푸닥거리, 살풀이, 굿 등 Client의 형편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장소등이 개별화 된다.<sup>18)</sup>

④ Client에게 무당으로서 혹은 사명받은 종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의식과 삶의 의미를 주고 잠재력을 개발시킨다.<sup>19)</sup>

⑤ 희망과 확신과 용기를 준다.<sup>20)</sup>

⑥ 치료자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Client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말라는 행동처방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지시한다.<sup>21)</sup>

⑦ Psychodramatist로서의 이들은 Client의 지적, 감정적, 감각적인 면의 반응을 일으키고 일종의 최면술도 쓴다.

⑧ 굿이나 예배등의 의식의 사용은 의식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 맞는다.

⑨ 문제 중심의 단기치료법을 쓰며 즉각적인 치료효과를 주장한다.

⑩ 집단치료와 Social Network접근책의 요인이 있다.<sup>22)</sup> Yalom의 집단치료의 치료적요인들 즉, 동일시, 이타주의, 집단응집력, 보편성, 감정정화, 희망, 인내,

16) 김 광일(1981). 무속에서의 정신치료적 요소, 도와 인간과학, 이동식 회갑논총, 서울.  
김 광일(1972). 한국에서의 민속 정신치료 : Part II. 무당의 병고치는 의식들, 한국 문화인류학, 5, 79-106.

17) 김 광일(1972), Ibid..

18) 김 광일(1972), Ibid..

19) Ibid..

20) Ibid..

21) 김 광일(1981), opcit.

유 정희, 이 부영(1983) 한국에서의 민속종교들과 관련된 정신병, 신경정신의학 22(2), 233-251.

22) Yalom, I.D.(197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Speck, R.V., & Attneave, C.(1973)

Family Networks. New York : Random House, Pan theon Books.



시스템을 이룬다.

① 가족치료의 요인이 있다.

무당은 주로 죽은 가족원과 현재의 가족원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일종의 정신 치료자이다. 이것은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는 Bowen<sup>23)</sup> 등이 대표하는 Extended Family Approach와 흡사하고 특히 굿에 있어서의 죽은 가족을 생각하며 곡을 함은 Norman Paul<sup>24)</sup>의 가족치료법과 흡사하고 각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굿을 사용함은 Strategic Family Therapy<sup>25)</sup>와 흡사하고 또 무속이나 신앙치료의 의식의 사용과 물체의 사용을 통한 극적인 효과를 누림은 이태리 집단의 가족치료법들과 흡사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Palazzoli<sup>26)</sup> Group과 Andolfi<sup>27)</sup> Group의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 별신굿, 부운당굿 등은 Multiple Family Therapy와 흡사하다.<sup>28)</sup> 감정적 경험의 제공은 Experiential Family Therapy와 흡사하다.<sup>29)</sup> 민속신앙 요법에서는 소속집단은 일종의 대리가족이었으며 집단원의 잃어버린 가족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는 V.Satir<sup>30)</sup>의 가족재구성 방법과 흡사하다. 굿은 서양보다 수천년 앞서 동양문화권에서 개발된 일종의 가족치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한방의학의 치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방의학의 음양오행설은 System Theory와 매우 유사하다. 한방의에서 질병을 신체 각 부분간의 부조화로 보거나 신체와 감정과를 불가분의 관계로 본 견해는 System Therapy에 기초한 Family Therapy에서 가족원의 증상을 가족 간의 비기능적 상호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유사하다.<sup>31)</sup>

- 
- 23)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24) Hoffman, L.(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A Conceptual Frame Work for Systems Change-New York : Basic Books.  
25) Haley, J.(1976) Problem solving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Bass.  
Madanes, C.(1981). Strategic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Bass.  
26) Selvini-Palazzoli, M. (1988) The Work of Mara Selvini Palazzoli Northvale : Jason Aronson.  
27) Andolfi, M., Angela, C., Menghi, P., & Nicolo-Corigliano, A.(1983) Behind the family mask : Therapeutic change in rigid family systems. New York : Brunner/Mazel.  
28) 김 태곤(1982), 한국 무속 연구, 집문당 : 서울.  
Laqueur, H.P.(1976). Multiple Family therapy. In P.J. Guerin(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29) Whitaker, C.A. & Keith, D.V., (1981) Symblic-experiential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30) 김 평일(1973) Traditional concept of disease in Korea. Korean Journal, 13(1) : pp.12-18.

역설적 방법을 사용했고 Psychodrama를 사용했고 문제 중심이고 가족의 개입을 전제로 했다.<sup>32)</sup> 이러한 특징들에 비추어 볼 때 한방의학은 Strategic Family Therapy적 요소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③ 한방의학은 병의 사전방지를 강조한다.

④ 일종의 가정치료인 한방의학은 가족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때로는 한 환자를 고치기 위해 각기 다른 지시나 임무가 각 가족원들에게 주어진다.<sup>33)</sup>

이상의 한국의 재래적인 문제해결 방법들을 분석해 볼 때 Crisis Intervention, Humanistic접근법, 행동수정적 접근법, Systemic접근법의 일면들이 발견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개인을 따로 치료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단 내에서 치료했음이다.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정신치료에 대해 살펴 보겠다. 한국의 여러 정신과의사들은 한국에서의 정신과 치료, 특히 정신치료가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sup>34)</sup> 여기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된 주된 정신치료책인 정신분석적 접근책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왜 정신치료가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겠다.

첫째로, 오랜시간의 결핍과 경제적 요인이다. 각 치료자에 따라 56~88%의 탈락율이 보고되고 있다.<sup>35)</sup> 1966년 한동세는 한국에 맞는 치료는 단기 Emergency 정신치료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36)</sup>

둘째로, 한국인의 치료자에 대한 기대는 적극적, 지시적인 것인데 이러한 기대에 안맞았다.

셋째로, 언어적 표현과 개인의 통찰력을 증시함은 비언어적이고 비통찰적인 한국문화에 안맞았다. 재래적인 방법은 말보다 의식을 통한 즉 구조 안에서의 감정

31) Minuchin, S., Rosman, B.,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32) 이 부영(1976), 동의보감에 나타난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하여-다섯개의 심리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15(1) pp. 20-27.

33) Owens, D.D. (1975) Korean Shamanism : Its components, context, and Functions Ph.D. Dissertation (Microfilm), University of Oklahoma, Norman.

34) 이 부영(1979), 정신의학과 한국문화-역사적 고찰. 최신의학 22(9), pp. 863-868.

이 재원, 윤 석하(1981), 한국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치료 실시 현황 및 그들의 정신치료에 관한 견해. 신경정신의학, 20(1) 94-107.

김 광일, 김 명영(1973), 정신과 입원환자 치료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문제들. 신경정신의학, 12(4) pp. 245-254.

강 민희(1978) 정신과 레지던트들에 의하여 실시된 정신치료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7(4), pp. 394-400.

36) 한 동세(1966), 한국에서의 정신과의사와 그의 훈련. 신경정신의학, 5, pp. 16-17.

동찰적 한국문화가 정신분석의 실패원인이라고 지적했다.<sup>37)</sup> 필자는 한국인에게 동찰력장려의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이 속한 시스템을 먼저 다루지 않는 한,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한국인의 재래적인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애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들 수 있다. 이부영은 66%의 정신병 환자가 정신과치료와 다른 재래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sup>38)</sup>

다섯째로, 전문인의 부족, 훈련의 부족 등 의료시스템 자체의 문제들이다.<sup>39)</sup>

여섯째로, 가족의 저항을 들 수 있다. 이동식<sup>40)</sup>, 김광일<sup>41)</sup> 등은 한국에서 정신 치료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가족의 저항과 개입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 아무리 훌륭한 치료책이라도 한국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정신과치료에서 가족을 치료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음은 재래적 방법들과 가장 다른 점 이라고 볼 수 있다.

## 2. II단계 : 한국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의 탐색

한국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적 모형은 한국인에 의해 수용될 수 있고 또 한국 문화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을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조건들 자체는 다른 문화권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첫째, 한국인의 대인관계 풍토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한국문화에 적합한 치료적 모형은 위기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가족이나 친지의 강한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빠른 증상해결, 단기치료, 위기의 해결 등의 한국인의 치료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인의 생활양식, 사회적 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의 시간,

37) 김 광일(1972), 한국문화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전통적 개념, 최선의학, 15, pp. 49-51.

38) 한 기수(1966), 한국에서의 정신치료를 위한 긍정적 요인들과 부정적 요인들, 신경정신의학, 5(1), 21-22.

39) 이 부영, 한 오수, 이 인수(1974), 한국에서의 정신치료탈락, 신경정신의학, 13(2), pp. 219-228.

40) 이 동식, (1981)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일지사, 서울.

조 두영(1979) 한국에서의 정신치료, 최선의학 22.

41) 이 동식(1978)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 정신치료와 그 평가, 신경정신의학, 21(2)

42) 김 광일, 김 명정(1973), 정신과 입원환자의 치료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 신경정신의학, 12(4), pp. 245-254.

넷째, 한국인이 도움을 구하는 양상과 부합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해 보는 Eclectic한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른 문제해결자들과 협동하여 일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인의 치료자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한국인이 적어도 치료 초기에 치료자는 능력과 권위가 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나 제언도 주고 반면에 인자하고 접근 가능한 스승의 이미지를 주는 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섯째, 한국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 양상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한국인의 간접적인 자기표현 경향이나 감정의 통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은 감정표현보다는 행동의 변화에 먼저 초점을 두고 필요시엔 치료 중반기이후에 적당한 구조나 의식을 통한 감정표현을 장려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2) Client와 그 가족의 체면손상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한다. 3) 가족 및 집단 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격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성장 이전에 관계성 증진에 먼저 초점을 둬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개별치료 이전에 집단치료나 가족치료가 먼저 실시됨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4) 한국인의 의미와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실존적, 철학적, 종교적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 한국종교들의 치료적 요인들을 통합해야 한다.

여덟째,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은 전통적 문제해결 방법들에서 나타난 치료적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채택할 때 Client에 의한 수용도가 클 것이다.

아홉째, 정확한 치료의 Target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속에서는 원혼을, 정신분석에서는 개인의 심층심리를 치료의 Target으로 보았으나 우리 문화에서는 먼저 가족 혹은 가족과 친지가 치료의 Target이 되어야 한다.

열째, 한국가정의 장점과 가치들을 치료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열 한번째, 한국가족의 문제와 요구를 올바르게 진단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열 두번째, 한국가족에 맞는 치료의 속도, 시기, 강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어떻게 빠른 변화를

개입을 빨리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열 번째, 한국가족을 위한 치료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목표들은 제시된 문제의 해결, 가족간 특히 부부간의 심리적 거리의 변화, 힘의 구조의 변화,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기능적인 가치관의 개발, 개인의 개별화, 세대간의 갈등과 상실감(Loss & Grief)의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나열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치료적 모델은 가족치료이다. 가족주의의 한국문화에서 가족치료가 가족의 체면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피한다면 개인주의의 서구사회에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문화에서 필요한 개인의 자주성을 개발시킴도 개별치료 이전에 가족치료를 먼저 시행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필자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점은 필자의 주장의 초점은 가족치료가 다른 형태의 치료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문화에서는 먼저 가족치료가 실시된 후에 개별치료, 집단치료 등의 다른 형태의 정신치료가 실시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3-I 단계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치료적 모형의 구상을 다루었다.

### 3. III단계 : 한국문화에 가장 적절한 치료책의 선택.

#### 1) 가족치료의 주요 학파.

현재 서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가족치료법으로는,

- ① Psychoanalytic School
- ② Behavioral School
- ③ Experiential School
- ④ Extended Family Approach.
- ⑤ Structural/Strategic/Ecological Approach<sup>43)</sup>

(S.S.E로 이제부터 부르겠음)

---

43) Hoffman, L. (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 A Conceptual frame work for systems Change. New York : Basic Books.

- ； 과거에 중점을 두는 학파와 현재에 중점을 두는 학파.
  - ； 모든 Case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학파와 각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계획을 세우는 학파.
  - ； 해석에 치중하는 학파와 행동변화에 치중하는 학파.
  - ； 성장에 치중하는 학파와 제기된 문제에 치중하는 학파.
  - ； 치료의 단위를 한 사람으로 보는 학파, 두 사람으로 보는 학파, 세 사람으로 보는 학파.
  - ； 가족을 동등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는 학파와 가족안의 위계질서를 인정하는 학파.
  - ； 직선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쓰는 학파와 비유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쓰는 학파.
- 한국문화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은 후자의 학파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Structural/Strategic/Ecological Family Therapy를 선택한 이유 및 S.S.E의 제한점.

2단계의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또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Structural Strategic Ecological(S.S.E.) 접근책이 한국인을 위한 치료적 모형의 핵심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S.S.E.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치료과정이 빠르다.
- ② 제시된 문제 중심.
- ③ 정신과적 병명을 사용 안함.
- ④ 가족의 비 기능적인 가치관을 다룸.
- ⑤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등의 강점을 이용.
- ⑥ 한 시스템의 갈등은 다른 시스템의 갈등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 ⑦ 가족의 Suprasystem들을 고려.

---

44) Madanes, C & Haley, J Dimensions of family therap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p. 165.

- ⑨ 통찰력이나 감정표시를 강조하지 않음.
- ⑩ 치료자는 적극적, 지시적임.
- ⑪ 은유와 의식의 사용.(한국문화에 적합)
- ⑫ 비 도전적인 기술들은 한국인의 체면유지와 거부감 감소에 도움이 됨. (Reframing, Paradox, Ritual, Tracking, Mimesis Positive Connotation, Maintenance 등)
- ⑬ Task와 Strategy의 사용은 한국인에게 익숙함.
- ⑭ Technique이 Pragmatic하고 Eclectic함.
- ⑮ Short-Term이고 경제적임.
- ⑯ 모든 Clinical Setting에 널리 적용됨.
- ⑰ 한국가족의 문제해결 및 치료의 목적달성에 적절함.
- ⑱ System Theory, Communication Theory 등은 한국문화와 부합되므로 한국문화에서 잘 받아들여 진다.
- ⑲ Structural Family Therapy는 특히 밀착된 가족과 Psychosomatic가족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에 이러한 가족이 많다고 봄.
- ⑳ Steven Sonn, Davis Ja,<sup>45)</sup> Jay Lappin<sup>46)</sup> 등은 아시아 Client들에게 Structural Family Therapy가 매우 유효했다고 그들의 경험을 말했다.

S.S.E.의 한계점은 인간을 보는 기계적인 견해,<sup>47)</sup> 개인의 성장에 강점을 안 들,<sup>48)</sup>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함이 부족,<sup>49)</sup> 치료자의 성숙성 강조의 불충분<sup>50)</sup> 등이다.

45) Sohn, S. P., & Ja, D.Y.(1982)

Asian families. In M. McGoldrick, J.K. Pearce, & J. Giordano(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46) Lappin, J. (1983). On becoming a culturally Conscious family therapist. In J. Hansen & C. J. Falicov(Eds.) Cultural perspectives in family therapy. Rockville : Aspen Systems Corporation.

47) Brunner, E. J.(Ed.). (1984). Interaktion in der Familie. Berlin/Heidelberg/New York/ Tokyo : Springer-Verlag.

Stein, H.F.(1983). An anthropological view of family therapy. In D. Bagarozzi, A. Jurich and R. Jackson(Eds.).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Ackerman, N.(1971). The growing edge of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0 : pp-143-156.

48) Kniskern, D., & Gurman, A. (1983).

Future directions for family therapy research.

In : D. Bagarozzi, A. P. Jurich & R.W.

Jackson(Eds.), Marital and family therapy : New prespectiv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49) Ibid.,

S.S.E.의 주요 이론들은 Systems Theory, Communication Theory, Small Group Theory이고, 주요 기술로는 Enactment, Intensity, Boundary-making, Use of strength, Paradox, Reframing, Ritual, Directives, Eco-map 등이 있다.

S.S.E.의 주요 학자로는 Minuchin,<sup>51)</sup> Watzlawick, Weakland, Fisch,<sup>52)</sup> Haley,<sup>53)</sup> Madales,<sup>54)</sup> Erikson,<sup>55)</sup> Andolfi,<sup>56)</sup> Palazzoli,<sup>57)</sup> Stanton,<sup>58)</sup> De Shazer,<sup>59)</sup> Aponte,<sup>60)</sup> Auerswald,<sup>61)</sup> Attneave,<sup>62)</sup> Spiegel<sup>63)</sup> 을 들 수 있다.

---

50)Ibid.

51)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Minuchin, S., & Fishman, H.C.(1981).

Family therapy technique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Minuchin, S., Rosman, B., & Baker, L.(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52)Watzlawick, Weakland, J.H., & Fisch, R.(1974). Change :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 W.W. Norton.

Fisch, J., Weakland, J., Segal, L.(1983) The Facts of change : Doing therapy briefly. San Francisco : Jossey-Bass.

53)Haley(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New York : Grune & Stratton.

Haley, J.(1976). Problem solving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Bass.

Haley, J.(1980). Leaving home : The therapy of disturbed young people. New York : McGraw-Hill.

54)Madanes, C.(1981). Strategic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 Jossey Bass.

Madanes, C.(March, 1980). paradox and pretending. Family Process, 19, pp. 73-85.

55)Haley, J.(1973). Uncommon therapy : The Psychiatric techniques of Milton H. Erickson, M. D. New York : Norton.

56)Andolfi, M., Augicci, C., Menghi, P. & Nicolo-Corigliano, A. (1983). Behind the family mask : Therapeutic change in rigid family systems. New York : Brunner/Mazel.

57)Palazzoli, M.(1988) The Work of Mara selvini Palazzoli Northrale : Jason Aronson.

58)Stanton, M.D.(1981) Strategic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Stanton, M.D.(1981). Marital therapy from a structural/strategic view-point. In G.P. sholevar (Ed.). The handbook of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New York : Medical & Scientific Books.

Stanton, M.D. Todd, T.C., & Associates.(1982). The family therapy of drug abuse and addiction. New York : Guilford Press.

59)deshazer, S.(1982). Patterns of brief family therapy : An ecosystemic approach.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60)Aponte, H. J.(1974. March). Organizing treatment around the family's problems and their structural bases. Delaware Medical Journal.

Aponte, H. J.(1976). The family-school interview : An eco-structural approach. Family Process, 15 : pp. 303-311.

Aponte, H.J.(1982). Foreword. In M.Mcgoldrick, K.Pearce, & J. Giordano.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61)Auerswald, E.(1968). Interdisciplinary versus ecological approach. Family Process, 7(2), pp. 202-215.

Auerswald, E.(1972). Families, Change, and the ecological perspective. In A Ferber, M.Mendelsohn & A.Napier(Eds.), The Book of family therapy(2nd ed.). New York : Science House.

Auerswald, E.(1974). Thinking about health and mental health. In S. Arieti(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New York : Basic Books.

62)Attneave, C.L.(1976). Social networks as the unit of intervention. In P.J. Guerin(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제 4단계에서는 S.S.E.의 수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S.S.E.는 한국에서 적용될 때 한국가족의 Ecological Context, 치료적관계 수립 양상, 계면의 중요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다.

5. V단계 : S.S.E.이와의 다른 치료적 요인들로 보강.

1) V-1단계 : 서구에서 발달된 치료적 요인들로의 보강.

S.S.E.는 2단계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할 수 없으므로 다른 치료적 요인들로 보강되어야 한다. 먼저 서구에서 도입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을 보면,

① 건강한 개인,<sup>63)</sup> 가족,<sup>64)</sup> 치료자의 특징<sup>65)</sup>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많이 나와야 한다.)

② Satir의 이론 및 기술.<sup>67)</sup>

③ Logo Therapy의 개념들.<sup>68)</sup>

④ Bowen의 자아분화, 감정차단, 전이개념들 및 Family Of Origin 갈등해결법.<sup>69)</sup>

63) Spiegel, J.(1971). Transactions inquiry : Description of systems. In J. papajohn (Ed.). Transactions : The interplay between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Science House  
Spiegel, J.(1982). An ecological model of ethnic families. In M.McGoldrick, J. Pearce, & J. Giordano(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64) Schultz, d. (1977). Growth psychology :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 d. Van Nostrand.

65) Hoopes, M.H, Fisher, B.L., & Barlow, S.H.(1984). Structural family facilitation programs. Rockville : Aspen Systems Corporation  
Beavers, W.R.(1983). Healthy, midrange, and severely dysfunctional familie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Skygger, R.(1981). An open-systems, group-analytic approach to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66) Rogers, C.R.(1959). Client-Centered therapy. In silvano Arieti(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3. New York : Basic Books.

Barker, R.L.(1984). Treating couples in crisis : Fundamentals and practice in marital therapy. New York : The Free Press.

67) Satir, V.(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 : science and Behavior Books.

Satir, V.(1982). The therapist and family therapy. In A. M. Horne, & M.M.Oblsen(Eds.).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Itasca : F.E.Peacock

68) Frankl, V.(1962).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Frankl, V.(1965). The doctor and the soul :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 New York : Knopf. (2nd. ed.)

Frankl, V.(1978). The unheard cry for meaning.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69) Bowen, M. (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a in the hospital and in private practice. In I. Boszormenyi-Nagy & J. Framo(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Bowen, M.(1976). Theory o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Guerin(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pp.42-90). New York : Gardner.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⑥ 대인관계 상황에 적용될 때의 행동접근책의 특징 및 기술.<sup>71)</sup>

⑦ Humanistic 접근책에서 발달된 Gestalt 기술 Fantasy, Family Sculpture 그림 등의 표현적, 경험적 기술들.<sup>72)</sup>

2) V - 2 단계 : 한국에서 발견되는 치료적 요인들로의 보강.

한국에서 발견되는 치료적 요인들로는 불교, 유교, 기독교, 무속, 민속신앙 요법, 한방의학 등에서 발견되는 이론적, 기술적인 치료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또 지난 수 십년간 한국에 소개되어온 정신분석학의 이론 및 수정된 기술을 들 수 있다.

불교, 유교 등을 포함한 동양사상은 S.S.E.의 System Theory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System Theory의 순환개념은 불교개념에서도 뚜렷이 발견된다.<sup>73)</sup> 유교에서도 System Theory와 흡사한 개념들이 발견된다. 즉, Boundary, Family Rule, Subsystem, System 등의 개념은 유교의 주 개념들이기도 하다. 유교의 仁 개념을 윤성범(1977)은 관계성 속의 인간이라고 풀이한다.<sup>74)</sup>

영국의 Robin Skinner는 "System Theory는 아직도 동양에서 보존되고 있는

---

70) Boszormenyi-Nagy, L.(1981). Contextual therapy : Therapeutic leverages in mobilizing trust. In R.J.Green & J.L.Fromo(Eds.), Family therapy.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oszormenyi-Nagy, L. & Ulrich, D.N.(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71) Epstein, N., & Williams, A.M.(1981) Behavioral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marital discord. In G.P. Sholevar(Ed.), The handbook of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New York ; S.P. Medical & Scientific Books.

Jacobson, N.S.(1981). Behavioral marital therapy. In : A.S. 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Gordon, S.B. & Davidson, J.(1981).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 A. S. Gurman & D.P. Kniskern (ed.),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72) Papp, P., Silverstein, O., & Carter, E., (1973). Family sculpting in preventive work with "Well families". Family Process, 12, pp.197-212.

Barker, P.(1981). Basic family therapy.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Geddes, M., & Medway, J.(1977). The symbolic drawing of the family life space. Family Process, 16 : pp. 219-228.

Guerin, D. J., & Pedagast, E.G.(1979). Evaluation of family system and genogram. In P.J.Guerin (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Bing, E.(1970). The conjoint family drawing. Family Process, 9 : pp. 173-192.

Whitaker, C.A., & Keith, D.V.,(1981). Symbolic-experiential family therapy. In A.S. 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Kempler, W.(1974). Principles of gestalt family therapy. Costa Mesa : The Kempler Institute.

73) Capra, F.(1975) The tao of physics. Boulder : Shambhala.

Kim, Young-Jung.(1980). The dissolution of material substance and the description by space or field. In : Tao and Human Science. D.S. Lee Festschrift.

Ko, Byung-Hak(1980). Zen and noetic dimension In : Tao and Human science. D.S. Lee Festschrift.

74) Yun, Sung-Bum.(1977). Ethics East and West.(M.C.Kalton, Trans.). Seoul.

S.S.E.가 핵심을 이루는 치료적 모형이 한국문화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유사점은 서양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발달된 System Theory에 기초한 S.S.E.의 제한점의 하나인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관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Skinner는 가족치료를 함에 있어서 서양심리학 중 System Theory마저도 불충분하고 동양적인 접근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5)</sup> 그는 자기들의 병적인면을 외재화 하고자 하는 가족System이 치료자 속에 불러 일으키는 압도적인 감정적 반응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치료자는 자신의 Identity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교의 가르침들 중 자아와 현실의 수용, 자주성파 극기, 고도의 자아의식 등과 유교의 위에 열거한 개념들과, 불교와 유교가 모두 강조하고 있는 대인관계적 가치와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들은 한국인을 위한 정신치료적 모형의 이른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sup>76)</sup> 또 불교의 “선”(禪)하는 방법과<sup>77)</sup> 불교나 유교의 교훈적인 이야기나 격언들은<sup>78)</sup>(유교: 부부관계가 부자관계 이전에 있고 부자관계가 형제관계 이전에 있다.) 특히 불교가정과 유교사상이 강한 가정에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독교적인 치료적 요인을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도시중류 가정의 1/3이나 되는 기독교인을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포함시켰다.

Systemic View는 기독교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75)Skynner, R.(1981). An open-systims, group-analytic approach to family therapy. In A.S.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76)Ibid.

77)Ko, Pyung-Hak.(1980). Zen and moetic dimension. In: Tao and Human science. D.S.Lee Festschrift.

Trungpa, C.(1979). A dialogue with psychotherapists. In J.Welwood(Ed.), The meeting of the ways: Explorations in East/west psychology. New York: Schocken.

Welwood, J., & Wilber K.(1979). On ego strength and egolessness. In J.Welwood(Ed.), The meeting of the ways: Explorations in East/west. Psychology. New York: Schocken.

78)Welwood, J. (Ed).(1979). The meeting of the way: Explorations in East/west Psychology. New York: Schocken.

Watts, A.(1961). Three: The Way of zen. Nature, man and Woman psycho-therapy East and West. New York: Partheon Books.

Sprung, M.(1979). Lucid exposition of the middle way. Boulder: Prajna Press.

79)Lee, Jung-ho.(1982). Hak Yuk chan on. Seoul.

명심보감(1982). 박일룡 번역. 육문사.

관된 관계로 보았다. 또 기독교 사상은 가족중심 사상이다. 가족이 성경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고 있는 Imagery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관계로 나타난다. 기독교의 Systemic견지와 가족중심 사상이외에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의 강조,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고난에 대한 가르침, 부활사상등은 기독교 가족을 도움에 있어서 여러가지 치료적 이론과 기술을 지시해 준다고 본다. 또 Client가족에 따라 기도나 성경의 인용, 가정예배의 권장등은 치료적 기술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부속, 민속신앙 요법, 한방의학 등의 치료적 요인들은 이미 논하였으므로 생략 하겠다.

다음으로 정신분석학을 살펴보면 한국 Client를 위한 정신분석은 통찰요법 위주로 치료 후반기에 치료자가 과거의 수동적인 위치에서 떠나 좀 더 Active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용된다면 한국인의 자아개념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6. VI단계 : 한국문화에 적절한 일반적 치료적 원칙들로의 보장.

제 6단계로 한국문화에 적절한 치료적 원칙들 및 방향수립에 대해 설명하겠다. 특정문화를 위한 정신치료적 모형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론과 기술 이외에 실제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치료자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문화 특징에 맞는 치료적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한국상황에 알맞는 Cotherapy의 방법들, 기관 설치에 관한 원칙들, 비 협조적인 가족원에 대한 접근책, 가족의 체면손상을 최대한으로 피하는 길, 부부, 자녀, 고부, 가치관의 갈등 문제들의 한국적인 해결 방향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 이름을 치료나 상담이라는 말을 피하고 가정생활 교육관 등으로 하고 교육 Program들과 치료Program이 기관안에 공존함이 좋을 것 같다. 또 가족의 체면손상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치료는 가급적 비 의학적인 전문인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능한 치료의 형태들 중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Client에 따라 8~12 회를 계약하고 필요시엔 1회 정도 재 계약함이 바람직하고 증상에 호전과 가족 재구성이 시작되면 치료의 간격을 2~4주로 뛰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 7. VII단계 : 치료 이전과 이후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인 프로그램들은 가족치료보다도 더 적용 가능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프로그램들은 예방적 효과가 있고 치료보다 더 경제적이고 체면 손상이 안 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Client를 위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치료가 끝난 후 단기치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발달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Marital Encounter Program, Minnesota Couples Communication Program 등의 부부 프로그램,<sup>80)</sup> Gordon의 Parent Effectiveness Program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sup>81)</sup> Family Enrichment Program,<sup>82)</sup> Family Life Education 등의 가족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여 알맞게 수정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상적으로는 부부나 가족이 몇 년에 한 번씩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다. 위의 프로그램들은 한 가지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치료 이전의 프로그램을 약 10주 하는 것, 앞으로 한국에서 교회, 지역사회, 학교, 직장을 단위로 한 대인관계 및 가족 관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문화에 적합한 정신치료의 모형을 구상해 보았다. 이제 각 치료 단계와 치료적 접근책을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시된 문제 해결 단계, 이 단계에서는 Strategic-Ecological Therapy, Structu-

- 
- 80) L' Abate, L.(1981). Skill training programs for couples and families. in A.S.Gur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Garland, D.S.R.(1983). Working with couples for marriage enrich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Jacobson, N.S.(1978). A review of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marital therapy. In T.J. Paolino & B.S.McCrady(Eds.),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 Psychoanalytic, behavioral and systems. theory prespectives. New York : Brunner/Mazel.
- 81) Gordon, T.(197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Peter H.Wyden.  
Patterson, G.R., & Gullion, M.E.(1963) Living with children : New methods for parents and teachers. Champaign, Ill. : Research Press.  
Dreikurs, R., & Soltz, V.(1967). Children : The challenge. Chicago : Alfred Adler Institute.  
Guernsey, B.G.Jr.(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 82) Pringle, B.W.(1973, May). The Family Cluster : A way to augment the nuclear group. Unpublished Paper.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Texas.  
Sawin, M.(1977). Family enrichment with family clusters. Valley Forge, Pa : Judson Press.  
L' Abate, L., & Collaboratos.(1975). A manual : Family enrichment programs. Atlanta : Social Research Laboratories.  
L' Abate, L.(1977). Enrichment : Structural interventions with couples, families and groups. Washington, D.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 Abate, L.(1981). Skill training programs for couples and families. In A.S.Gurman & O.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Hoopes, M.H., Fisher, B.L., & Barlow, S.H.(1984). Structural family facilitation programs. Rockville : Aspen systems Corporation.

용함이 바람직하다.

2) 가족 재 구성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로 Structural-Ecological 접근책을 주요 접근책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3) 개인 및 대인 관계의 성장단계; 이 단계에서는 Humanistic/Experiential 접근책과 의사소통 훈련이 특히 바람직하고 그외에 Bowen 등의 세대간 접근책과 정신분석의 통찰요법도 Client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에서 발견되는 치료적 방법들은 위의 모든 단계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 위의 단계들은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고 또 각 단계에 따른 접근책도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III. 結論 및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S.S.E.를 핵심으로 삼고 거기에 여러가지 서양의 기존 정신치료책에서 발견되는 치료적 요인과 한국문화에서 발견되는 치료적 요인들을 보충하여 혼합적인 치료적 모형을 7단계로 나누어 구상했다. Liddle은 혼합주의는 System Theory와 동양사상적 관점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유사성이라고 했다.<sup>83)</sup> Systemic관점에서 볼 때 필자의 의견으로는 위의 모든 이론과 기술들이 서로 연관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한국 현실과 문화에 비추어 어떤 치료적 요소를 어떤 단계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Client System에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위에 구상된 치료적 모형은 문화적 상대주의 위협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Client의 문제를 개인적, 문화적, 초문화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개별적으로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치료적 모형의 핵을 이루는 S.S.E.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Systemic견지는 오랜 한국문화와 최근 서양 심리학 중 Systemic접근책이 공유하고 있는 견지이다. 이것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83)Liddle, H.A.(1982). On the problems of eclecticism : A call for epistemologic Clarification and human-scale theories, Family Process, 21(2).

올바르게만 심어 진다면 더욱 잘 자라리라고 본다. 여기 설명된 치료적 모형은 우리 문화에서 발견되는 더 많은 치료적 요인들과 한국가족의 현실에서 추출되는 치료적 원칙들과 방향에 의해 더욱 보완되고 또 임상적 조사를 통해 계속 실험되고 수정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sup>84)</sup>

---

84) 이 연구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수정판의 개요이다. 이 수정된 논문은 1987년 독일 Peter Lang(Frankfurt)출판사에 의해서 *Korean Families and Family Therapy—projection of a Therapeutic Paradigm for Korean Urban Middle-class Familie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 소개한 개요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논문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